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4월 12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12(수) 오전 0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4. 11. (화)	담당부서	산업기술정책과

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정창현 과장 (044-203-4510)
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최규종 팀장 (02-6050-3381)

신산업 민관협의회, "4차 산업혁명 시대 : 코리아 루트 개척 컨퍼런스"

4차 산업혁명 시대,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논하다 !

주형환 산업부장관, "이제 총론을 넘어 각론으로, 민-관의 새로운 역할 강조"

- **'규제'와 '일자리 대체' 문제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제약요인으로 제시**
- **최대 격전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선점을 위한 원격의료 규제완화 강조**
- **인공지능 기술의 '활용'을 통한 신산업 조기창출 전략 제시**
- **자율주행차, IoT가전, AR/VR, 바이오헬스 등 16개 융합얼라이언스 가동**
- **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'스마트공장 2020 이니셔티브' 강력 추진**
- **미국,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·다자간 경제협력방식 전면 재검토 착수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주형환)와 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만)가 주최하고 '**신산업 민관협의회**'가 주관하는 「**4차 산업혁명 시대 : 코리아 루트 개척**」 컨퍼런스를 4.12일(수), 10시부터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함

【 신산업 민관협의회 컨퍼런스 개요 】

- 일시/장소 : '17. 4. 12(수) 10:00~ / 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
- 프로그램 : (세션1) 10:00~11:30, (세션2) 13:00~17:00 (☞참고1. 세부개요)
- 참석 : 산업부 장관, 대한상의 회장, 신산업 민관협의회 위원 및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

○ **신산업 민관협의회는 발족 1주년**을 맞아, 지난 1년간 **민관이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** 위해 글로벌 환경 분석 및 우리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, 이를 종합하여 금번 컨퍼런스를 개최

○ 특히, 이번 행사는 **산업계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4차 산업혁명**에 대해 **각계 최고 전문가들의 패널토론**을 통해 그 **본질과 대응방향**에 대한 **통찰력**과 **미래 준비방향을 제시**하는데 의의가 있음

대한상의 회장 개회사

□ **(신산업 민관협의회 활동)** 정부, 기업,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그간 우리의 신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해왔으며, 금일 컨퍼런스를 통해 대외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평가함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**(경제계 계획)** 경제계의 관심이 높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여러 경제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사안을 발굴·제안할 계획을 밝힘

산업부 장관 강연 주요내용

□ **(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)**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,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. **4차 산업혁명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**

□ **(4차 산업혁명 대응준비)**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, **산업부**는 '16년초부터 민간 중심으로 발족한 **'신산업 민관협의회'를 구심점**으로 하여 **4차 산업혁명에 대비**하여 왔음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4-12 09:10:12

○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작년末 「**4차 산업혁명 대비 12대 신산업 창출 방안**」을 발표한 바 있고, **추가 보완작업도 마무리 단계**

□ **(4차 산업혁명의 제약요인) 인공지능의 시대, 4차 산업혁명**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산업과 일부 영역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I, IoT, 로봇 등 **파괴적 기술들을 여하히 전산업, 전영역으로 확산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**하느냐가 관건

○ 소비자 안전, 프라이버시 보호, 기득권 저항 등에 대한 우려로 파괴적 기술의 적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❶**규제**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❷**일자리 대체(Job Displacement)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보완체계**가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

○ 그러나, **역사적 산업혁명**이 그러했듯이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가 **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기술르네상스 시대**로 나아갈 것으로 확신

□ **(기본방향)**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으로서 특히 **민관 파트너쉽 (Public-Private Partnership)**을 강조

○ 4차 산업혁명의 전개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던 **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**, 그렇다고 **민간 혼자힘으로 헤쳐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** 그 어느때보다 **민관 파트너쉽에 기반한 제도·정책 마련**이 중요하다고 밝힘

□ **(대응전략)**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**▲혁신생태계 구축, ▲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, ▲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** 등 3가지를 제시함

○ 먼저, **혁신생태계 조성**을 위해 ❶**과감한 규제개선,** ❷**선택과 집중 지원,** ●**융합플랫폼 구축** 등 3대 세부과제를 제시

【과감한 규제개선】

- 지난해 **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제도 도입**을 통해 1차로 발굴된 271개 신산업 규제중 94%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는 성과가 있었음. 향후 **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최대 격전지**로 예상되는 바, 시장선점을 위해 **원격의료 및 데이터 규제의 과감한 개선** 시급

- 반면,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**스마트한 규제**는 적극 도입 필요. 안전기준을 담은 **이동형로봇 가이드라인 제정**('17.12월), **무인차 미래규제 로드맵** 마련, **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** 개선, **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** 등이 대표적

【선택과 집중지원】

- 장기적으로 AI 원천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,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할 때 **AI 기술의 '활용'에 보다 역점**을 둘 필요. 업스트림 분야에서 **AI 구동과 관련된 시스템반도체, 차세대 이차전지** 등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면서,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**가전, 자동차, 공장 등에 AI를 접목, 신산업 창출**을 서두를 필요

- **12대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80조원 투자계획**을 뒷받침하기 위하여, ①**R&D지원**(원천핵심기술 7조원 등), ②**신산업 세제지원 확대**(R&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), ③**금융 지원**(4차 산업혁명선도펀드 3천억원 연내 조성, 반도체 성장펀드 2천억원 조성완료 등), ④**인프라 구축**('20년까지 2,200만호에 AMI 보급, '17년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2만대 보급 등) 등 추진

【융합플랫폼 구축】

- 수요기업, 공급기업, 규제당국,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**비즈니스 모델 및 공통기술 개발, 표준·인프라 구축, 초기시장 창출방안** 등 논의. 현재 전기자율차, 에너지신산업 등 12개 구축완료, **추가로 IoT가전 등 4개분야 구축 예정**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4-12 09:10:12

○ 둘째, **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**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

- 4차 산업혁명으로 **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**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, **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,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,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, 사회안전망 보강**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. 특히,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**'임금보험(Wage Insurance)' 도입**도 적극 필요성 제기

○ 마지막으로, 대전환기인만큼 **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대응**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**❶4차 산업혁명에 따라 양자·다자관계 재정립**, **❷선진-개도국 격차 해소**, **❸중소기업 역량 지원**, **●사이버 보안 협력** 등 4대 과제를 제시

【양자·다자관계 재정립】

- 미국과의 첨단산업 협력 합의('17.3월), 일본과의 한-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합의('16.10월)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, 특히, 금년 9월 10여년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**ASEM 경제관계장관회의**('17.9.21~22)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힘

【선진-개도국 격차 해소】

- 기술적응력 격차, 선진국 리쇼어링 등으로 저임 노동력에 의존하던 **전통적인 개도국 발전모델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**하다고 강조하면서, 개도국 중심의 인구구조적 변화에 유의하여 **선진-개도국간 AI 격차해소 협력, 개도국간 메가 FTA 확대, 국경간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정립**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

【중소기업 지원】

-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은 혁신적 창업·벤처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겠지만, 모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변화를 못쫓아 가거나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자칫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

- **'스마트공장 2020 이니셔티브'**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적응력을 높여나가면서, 중소기업 역량 지원에 관한 다보스포럼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힘

【사이버보안 협력】

- 사이버보안을 **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**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**보안기술 및 보안전문가 양성, 사이버보험 활성화, 가칭 사이버 평화유지군 창설** 등을 중장기 논의과제로 제안

□ 주장관은 민관 파트너십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으로 삼아, 이제는 **총론에 대한 논의를 넘어 세부적인 각론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**고 강조하면서, 앞으로 **16개 융합얼라이언스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**될 것이라고 밝힘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선진1 패널토론 발언 내용

□ **(카이스트 신성철 총장)** 4차 산업혁명은 **과학기술과 산업융합에 따른 전환의 시대**라고 규정하며, 기존 성장패러다임의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 **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**할 수 있다고 평가함

○ 4차 산업혁명은 **'CPB 시스템**(물리계 P, 사이버계 C, 생물계 B)의 **혁명'**으로 C·P·B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**기술·공간간의 융합**으로 새로운 사회·경제적 질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함

□ **(현대차 지영조 소장)** 4차 산업혁명의 **변혁의 중심에 자동차 산업**이 있다며, **모빌리티의 대전환기로 인식**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조

○ 민간 혼자의 힘만으로 거대 변화를 이끌기는 역부족이라며 **법·제도, 인프라 구축** 등 **정부의 적극적인 지원**을 요청함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4-12 09:10:12

□ **(쏠리드 정준 대표)**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**과감한 규제개선, 기존산업과의 융합·협업 촉진하는 상생모델 창출, 기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** 등을 제안함

○ 아울러, 중소기업계는 규제·인력·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며 창업규제 개선·기업가정신 확산·우수인력 수급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안

□ **(베인앤드컴퍼니 이성용 대표)** 국내 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기회 활용을 위해 **Ecosystem 개발, 인적자원 개발, 협업확대, 규제완화, 중견업체 브랜드화** 등을 제안함

○ 국내 기업간 협업이 부족함에 아쉬움을 표하며, 국내 업체간 협력이 확대된다면 향후 한국의 브랜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

세션2 주요 내용

□ **(플랫폼 혁명)** 플랫폼 혁명의 트렌드와 제조업의 미래를 점검·전망하고 자율차, 로봇, 스마트선박, 항공드론, AR/VR 분야에 있어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논의

○ 특히, 국내 중소 로봇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, 스마트 선박의 실증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 강조

□ **(스마트 혁명)**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소재·부품 산업의 대응전략을 논의. 특히, 반도체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

○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저전력, 초고속, 초경량 반도체 기술 확보와 산업성장을 위한 수요-공급간 밸류체인 구축 중요성 강조

□ **(에너지 신산업 혁명)**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전략을 논의. 신재생+ESS,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과 함께 민간-공공 협력투자,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토론을 진행. 끝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권주현 사무관(044-203-4511),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최규종 팀장(02-6050-33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4-12 09:10:12

붙 임 **행사개요**

1. 개요

□ **(일시)** '17.4.12(수), 10:00～17:00

□ **(장소)** **플라자호텔** LL 그랜드볼룸

□ **(행사명)** "4차 산업혁명 시대 : 코리아 루트 개척"

* 주최 : 산업부, 대한상의 / 주관 : 신산업 민관협의회

□ **(참석자)** 신산업 민관협의회 위원, 기업 CEO 등 200여명

□ **(일시/장소)** '17.4.12(수), 10:00～17:00 / **플라자호텔** 그랜드볼룸

2. 세부 프로그램

□ **(세션 1)** "4차 산업혁명 시대, 新성장 루트 개척"

시 간	내 용	비 고
10:00～10:05 (05')	• **개회사**	대한상의 회장 (신산업민관협의회 공동의장)
10:05～10:25 (20')	• **기조강연**	산업부장관 (신산업민관협의회 공동의장)
10:25～11:30 (65')	• **토 론** (플로어질의 포함)	패널토론자
	- Leading discussant	신성철 KAIST총장
	- 패널토론자 발언	

○ (패널토론자) KAIST 신성철 총장, 현대차 지영조 전략기술연구소장, 베인앤드컴퍼니 이성용 대표, 쏠리드 정준 대표, 서울대 이정동 교수(Moderator) 등

□ **(세션 2)** "4차 산업혁명 제조·에너지의 미래"

○ 각 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국장이 주제발표를 한 후, 전문가들과 패널토론을 할 예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3:30～14:30 (60')	• **Platform 혁명**	(주제발표) 시스템국장
	- **(주제)** 플랫폼 혁명의 트렌드와 전망, 민관의 역할 논의 - **(토론자)** 시스템국장, 최재붕 교수(성균관대), 엄재용 연구위원(현대차), 신경철 대표(유진로봇), 김대영 상무(현대중공업), 김응태 본부장(향우연), 김래현 책임연구원(KIST)	
14:45～15:45 (60')	• **Smart 혁명**	(주제발표) 소재부품국장
	- **(주제)**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업 경쟁력의 원천, 新 소재·부품 - **(토론자)** 소재부품국장, 구용서 교수(단국대), 이도영 대표(옵토레인), 김석순 대표(유니젯), 양석훈 상무(딜로이트), 장웅성 MD(R&D전략기획단)	
16:00～17:00 (60')	• **에너지신산업 혁명**	(주제발표) 에너지신산업국장
	- **(주제)** 新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, 에너지신산업 - **(토론자)** 에너지신산업국장, 최준균 교수(카이스트), 신영식 상무(LS산전), 하태석 상무(LG CNS), 김성우 본부장(삼정KPMG), 이상학 센터장(전품연)	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4-12 09:10:12